

국교정상화 후 누적적자 708조… 對日의존무역 ‘민낯’

산업 발전 속 의존도 낮추지 못해
반도체 메모리·팹리스 부정적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첨단 산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이 입을 피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7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상반기 대일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중 전자부품(-21억 달러)과 화학 물질과 화학제품(-18억 5000만 달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각종 부품, 플라스틱과 1차 금속, 비금속 등 소재도 각각 15억 달러 가까운 손해를 봤다. 국내 산업이 그동안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단 한번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누적적자만 708조 원에 달 한다. 최근 5년 동안만 봐도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도 일본은 가장 적자가 큰 나라다. 지난해 241억 달러 적자로 사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디아라비아(224억 달러), 카타르(158억 달러), 쿠웨이트(115억 달러) 등 산유국을 제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에 의지해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의존도를 낮추자는 못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분야가 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이다. 1990년대 시장 주도권을 국내로 가져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장비와 재료는 여전히 일본 비중이 높다.

관련 일본 기업이 국내에 자사를 만들었을 정도다. 지난해 매출액 1조 2603억 원을 거둔 토피아일렉트론(TEL) 코리

아와, 2092억 원을 벗한 한국신에츠실리콘 등이다. 일부 기업은 국내에 공장까지 두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스스로도 피해를 입는 조치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나온다. 당장 소재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국내 기사가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본사 매출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절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소형 OLED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본산 모바일과 IT 생산에서도 큰 부담이 불가피하다.

세계적 수준인 일본 팹리스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계가 사실상 TSMC와 삼성전자로 압축된 가운데, TSMC 독주체제가 다시 시작되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더 문제가 크다. 정부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일반 소재 육성에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

표하면서다. 그 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 소재와 장비 등이 국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고급 인력도 최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 아냈다.

여행 산업도 일본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월까지 일본을 향한 관광객 숫자는 전년비 5% 가량 줄어든 325만 명이었다.

일단은 일본 관광객이 그동안 충분히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일 감정까지 커지면서 일본 여행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일본 업체 공장이 국내에도 적지 않아서 스스로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갈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업계에 자립 필요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日 기업 아니에요”… 선긋는 유통기업들

코카콜라, 토레타 등 제품해명 나서
다이소·세븐일레븐 등 관계없음 강조



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한국의 다이소 아성산업은 일본 다이소와 별개 기업”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외국 기업이 지분을 투자하는 일은 흔한데 이를 두고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쳤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편의점 1위 업체다. 미국에서 창립한 편의점 브랜드로, 국내 세븐일레븐은 지분의 70% 이상을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로 롯데그룹이 계약을 체결해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편의점 CU도 세븐일레븐과 비슷하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기존에 일본 훼미리마트 브랜드를 빌려서 쓰다가 지난 2012년 라이센스 계약 종료와 함께 한국 브랜드로 완전히 바뀌었다. 훼미리마트에서 CU로 이름을 변경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매 대상이 됐다. CU 관계자는 “CU는 일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장되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국내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동참했다.

임원배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일본이 무역 보복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할 경우 동네 슈퍼들은 일본산 맥주 및 담배 등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전면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장되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국내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동참했다. 임원배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일본이 무역 보복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할 경우 동네 슈퍼들은 일본산 맥주 및 담배 등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전면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이지만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포함돼 억울해하는 곳도 있다.

다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기업이다. 다이소는 그동안 일본과의 과거사 이슈가 터질 때마다 불매운동 리스트에 포함됐다. 그러나 다이소의 대주주는 한국 기업인 아성HMP다. 일본 다이소는 2대 주주로 지분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관자네 온 새우

- 큐브 단호박
- 통통한 새우
- 쫄깃한 관자
- 관자네 온 새우 L 29,900 M 25,900

한턱 쏘시지

- 탱글쫄깃한 여수 관자에 통통한 새우가 달달한 큐브 단호박으로 장식하고 녹진~한 크림치즈를 덮었다!
- 선선한 초여름 밤에 시원한 맥주와
- 잘 어울리는 해산물 피자!
- 감칠맛 나는 토마토소스
- 탱탱한 쏘시지
- 한턱 쏘시지 L 19,900 M 16,900

신메뉴 2종 L 세트 방문포장 시 15,000원 할인

* L세트 (관자네 온 새우 L or 한턱 쏘시지 L + 오븐구이치킨 + 콜라 1.25L)

1599-1082